

## 나혜석의 여성해방론의 특색과 역사적 의의

이노우에 가즈에(井上和枝)\*

1. 머리말
2. 나혜석의 여성해방의 실천
3. 「이혼고백장」과 재판 사건
4. 맺음말

### 초 록

근대에 들어와 조선의 여성들은 자아의식에 눈뜨고 가정과 사회에서의 남녀불평등의 개혁에 힘을 쏟아 왔다. 그러나 연애와 섹슈얼리티(sexuality)에서도 남녀가 평등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주장은 나혜석이 최초였다.

「이혼고백장」 발표와 거의 동시기에, 나혜석은 소완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최린을 상대로 고소하였다. 고소내용은 정조유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다. 이처럼 남편과 연인이었던 남성에 대해서 개인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발한 것은 나혜석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배척하기에 충분한 조건이었다. 개인적인 일로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사회화한 것, 당시의 '여성문제에 진보적인' 남성조차 가지고 있던, 섹슈얼리티에서의 남녀의 지배·피지배 관념에 항의하였기 때문이다. 사회와 가족의 전통적인 가부장제 구조가, 일제 지배하에서 국가적인 질서에

\* 일본 무사시노여자대학 인간관계학화 전임교수.

편입된 가족제도로 바뀌어 가려고 하는 이 시기의 조선에서, 나혜석의 주장은 완전히 이단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그녀의 여성해방론의 특징은, 모든 영역에서 남녀의 불평등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종래 여성측으로부터는 타부시되어 왔던 섹슈얼리티 영역의 불평등까지 포함해서 강요된 '정조'와 '치녀성'을 부정한 점에 있다.

이처럼 나혜석의 생각과 그것에 토대를 둔 행동을, 그녀의 '특이한 개성'에 의한다고 하면, 그것은 본질에서 매우 벗어난 의론이 될 것이다. 오히려 나혜석의 언설은 극히 현대적인 문제를 던지고 있고, 또한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여성해방론과 비교연구할 만한 제재를 갖고 있다.

## 1. 머리말

조선근대의 여성해방은 유교를 근거로 하는 가부장제와 일본의 식민지 지배라는 이중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점에 특징이 있다. 양자는 각각 별개로 근대조선의 여성 앞에 가로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 뒤엉켜 있었던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민족적 모순해결을 위한 독립운동과 '개(個)의 해방' 실현을 위한 영위는 목적도 다르고, 방법도 달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근대조선 여성사에서는 민족독립을 위한 영위가 여성운동에서 제1차적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연한 결과로 가부장제를 극복하고, 여성의 '개(個)로서의 해방'을 쟁취하는 것은 뒤로 돌리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남녀평등을 내걸고, 여성해방에 몰두한 개인이나 단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식민지라는 역사적인 제약 아래 민족해방운동의 한 부분으로서였고 또한 그 같은 여성운동의 방향은 조선사회의 인지를 얻었다.

그렇지만 여성이 자아에 각성하고, 가부장제에의 투쟁을 개시할 경우 그 투쟁의 대상은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조선의 강고한 가족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질서였다. 자연히 그녀들의 싸움은 조선사회로부터

혹독한 비판과 지탄을 받고 극히 고독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1920·30년대, 기존의 가부장적 가족질서와 성별도덕에 회의를 품고 평등에 뿌리 둔 새로운 남녀관계의 구축을 목표로 한 것이 「신여성」이었다.<sup>1)</sup> 「신여성」은 구미의 여성해방 사상을 수용하고 나서 전개됐던 일본 ‘청탑(靑鞜)’ 운동에서 영향을 받고 조선사회나 가정에서 남녀차별을 변역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는 그녀들의 여성해방의 주장 그것보다 그녀들의 자유연애 실천에 눈을 돌려, ‘부도덕하고 문제 있는 여성들’이라고 비난했다. 당시의 「신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탓인지, 지금까지 「신여성」에 관한 연구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여성」의 사상과 행동 한계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늘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볼 때 「신여성」의 주장과 행동은 새로운 조명을 해야 하는 시기에 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는 그 「신여성」 가운데서도 가장 과감히 남성중심의 사고양식에 대결했다가 좌절했다고 할 수 있는 나혜석의 여성해방 사상과 그것에 토대를 둔 행동을 검토하려고 한다. 특히 그녀가 후반생(後半生)에서 당시의 사회와 완전히 대결하고 사회로부터 말살된 원인이라고 생각할 있는 「이혼고백장(離婚告白狀)」과 최린을 제소한 사건을 분석하여 거기에 나타난 나혜석의 여성해방론의 특징을 해명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

1) 「신여성」의 규정에는 여러 설이 있다. 동시대 사람들에게서도 「신여성」에 대한 많은 언설이 나타났는데, “신식교육의 중등정도를 마친 여자”(주요섭, 「新女性과 舊女性의 行路」, 『新女性』 7-1, 1993년 1월)라는 구체적 규정에서부터, “의지력과 불길같이 타오르는 반역정신과 철저한 모성의 자각과 현실생활에 대한 기쁜 성찰이 있는 여성”(八峰山人, 「所謂 新女性의 냄새」, 『新女性』 2-6, 1924년 8월), “남녀 공동한 처지에서 사회적 결합에 향하여 노력해야 되다는 것을 의식한(여성)”(月河, 「評論」, 『신여성』 3-5, 1925년 5월)라는 이념적 설도 있다. 또 현재 연구자들에게서는 “文字 解讀이 가능한 농촌·노동 여성 중에 그들 자신의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歷史發展에 기여하는 광범한 大衆女性” 및 “부르조아 지식계층여성”의 양자를 가리킨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申榮淑, 「日帝下 新女性의 社會認識-『新女性』과 『開關』誌를 중심으로-」, 『梨大史苑』 21, 1985년 5월)

밝혀 보고자 한다.<sup>2)</sup>

## 2. 나혜석의 여성해방의 실천

나혜석은 1913년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 유화학과(油畫學科)에 입학하여 미술공부를 하는 한편, 유학생의 친목기관 학흥회(學興會)의 조직에 관계하고, 그 회보 「여자계(女子界)」, 동경유학생의 조직인 학우회의 기관지 「학지광(學之光)」에 소설과 평론을 기고하기도 하였다. 일본 유학시절에 집필된 것은 생경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매우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선의 여성에게 남녀의 평등과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자각을 호소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상적 부인(理想的 婦人)」에서는 “양처현모(良妻賢母)라 하여 이상을 정함도 필취(必取)할 바이 아닌가 하노라. 다만 차를 주장하는 자는 현재 교육가의 상매(商賣)적 일호책(一好策)이 아닌가 하노라”라고 하여, 양처현모 교육을 부정한다. 또한 여성을 남성의 노예로 하기 위해 오랫동안 여성에게 온량온순(溫良從順)을 부덕(婦德)으로서 장려한 결과, 여성은 이상(理想)의 식별조차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현대의 여성이 뜻 있게 자기의 개성을 발휘하려고 하는 자각을 갖기 위해서는, 지식·기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sup>3)</sup> 이러한 여성의 자기실현과 현상 변혁의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은 금후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단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나혜석이 동경에 유학하였을 바로 그 때쯤 일본에서 최초로 여성해방을 주창한 잡지 『청탑(靑鞵)』(1911~1916)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 관계자 가운데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 졸업생이 3명(荒木郁子·小笠原貞子·尾竹一枝) 있었고 『청탑(靑鞵)』의

2) 나혜석에 관한 연구는 ‘신여성’ 연구들 중에서도 앞서 있다. 문학이나 미술뿐만 아니라 요즘 페미니즘의 관점에서부터 하는 연구도 나타나서 그녀에 대한 평가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 뜻에서 대표적인 연구로서는 이상경, 「가부장제에 맞선 외로운 투쟁」(『역사비평』 31, 1995년 11월), 동, 「한 페미니스트 자유혼의 패배」(『자유라는 화두』, 1999년 4월, 삼인) 등을 들 수 있다.

3) 나혜석, 「理想的 婦人」, 『學之光』 3호, 1914년 12월.

표지 그림을 그린 오다케(尾竹一枝)는 나혜석의 1, 2년 선배가 된다.

나혜석이 가부장제와 벌인 싸움의 제1보는 아버지 나기정(羅基貞)과의 사이에서 일어났다. 나혜석은 당시로서는 부유하고 개명적인 가정환경에 있었지만, 아버지는 역시 딸의 혼기가 늦어지는 것을 걱정해서 연담(緣談)을 진척시켜가면서 귀향을 재촉하기 위하여 학비를 송금하지 않았다. 나혜석은 아버지가 강요하는 결혼을 피하기 위하여 여주 공립보통학교 교원이 되고 1년간의 봉급을 저축해서 동경에서 다시 학업을 계속하였다.<sup>4)</sup> 아버지의 강요하는 결혼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굳게 장래를 약속했던 애인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사이 나혜석은 아버지와 전면대결을 피하면서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20년 나혜석은 약혼자 최승구(崔承九)의 사후, 동경 유학 때부터 사귀어 왔던 김우영(金雨莢)과 결혼했다. 결혼에 임하여서는, “일생을 두고 지금과 같이 나를 사랑해주시오,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마시오, 시 어머니와 전실 딸과는 별거케 하여 주시오”라고 하는 3가지 조건을 내놓았다.<sup>5)</sup>

김우영은 전면적으로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녀의 희망대로 신혼여행 도중에, 병사한 최승구(崔承九)의 묘를 찾아가 석비를 건립하여 주었다. 새로운 결혼의 형태로 사람들의 호기심에 찬 눈으로 주목하는 가운데, 나혜석은 김우영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가사, 자식의 양육, 외교관 부인으로서의 일을 하는 한편,<sup>6)</sup> 화가로서 재필(才筆)을 날릴 뿐 아니

---

4) 나혜석, 「나의 女敎員時代」, 『三千里』 7월호, 1935년 7월. 여기에서 R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나혜석 자신이라고 생각된다. 동경여자미술대학에 남아 있는 학적부를 보면, 대정 3년(1914)의 3학기부터 다음해까지 휴학하고 있다.

5) 나혜석, 「離婚告白狀-靑丘氏에게」, 『三千里』 1935년 8월호.

6) 남편 김우영은 1923년 만주 安東縣의 부영사로 부임했기 때문에 함께 갔다. 金一葉, 「眞理를 모릅니다-나의 회상기」, 『金一葉文集』 상(인물연구소, 1974)에, 나혜석의 소학교 때부터 동급생인 全有德이 그들의 생활을 보고 와서 김일엽에게 들려준 말로서, 나혜석이 가사를 잘 하고 자식의 돌봄, 방문객의 접대,

라 여성의 생활개량에 대한 의견, 소설의 발표 등 왕성한 문필활동도 펼치고 있었다. 안정한 생활 속에서 다방면에 걸친 종합무진의 활동이었다. 본업인 회화에서도 그 활약은 눈부신 것이었다. 바로 ‘신여성’ 나혜석이 ‘신남성’ 우영과 만나서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이상적인 가정 만들기에 매진하였던 시기이다. 물론 이때 양자의 사이에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김우영은 전통적인 가정상에 속박 받는 사회와 가족에 정면으로 맞서는 나혜석의 좋은 파트너였다.

1927년 6월부터 28년 2월까지 나혜석은 남편과 함께 세계일주 여행을 하였다. 가족을 두고 만유(漫遊)를 위한 출발을 결심한 것은, 장년(長年)의 현안(懸案) 사항, 즉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나? 남녀간 어떻게 살아야 평화스럽게 살까? 여자의 지위는 어떠한 것인가? 그림의 요점은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했었기 때문이다.<sup>7)</sup> 이 여행은 그림에서 새로운 경지를 열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구미의 여성참정권 등의 여성운동, 탁아소 등을 견문하고 여성해방에의 신 시좌(視座)를 얻은 것도 매우 큰 성과였다.<sup>8)</sup>

한편 이 구미일주 여행은 나혜석의 후반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것은 파리에서 천도교의 지도자 최린(崔麟)과의 만남이다. 3·1운동 때 함께 투옥된 경험이 있고 취미가 다채롭고 회화 전람회에도 출품한 적이 있는 최린과, 나혜석은 의기투합했다.<sup>9)</sup> 김우영은 독일로 가면서 최린에게 처의 일을 부탁하였기 때문에, 나혜석은 최린을 신뢰하고 유람과 시찰에 거의 동반하였다.<sup>10)</sup> 둘이서 약소국민회 부회장 페르리시앙 레레

---

서류정리까지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에 감동하고, 사회에서 나혜석의 김우영으로서 알려지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하는 것도 기록되고 있다.

7) 나혜석, 「소비에트 露西亞行-歐米遊記의 其一」, 『三千里』 1932년 12월호.

8) 「나는 무슨 주의자인가 (諸氏의 聲明)」, 『三千里』 1935년 5월호에 나혜석은 「장차 조흔 時機있으면 女性運動에 나서려 합니다」고 여성운동에의 의욕을 보이고 있다.

9) 車相瓊, 「人物月旦崔麟縱橫觀」, 『彗星』 1-3호(1931년 5월)에 최린의 사람됨됨이와 취미에 관한 기술이 있다.

씨와 프랑스 여성참정권운동회 회원인 부인을 방문한 적도 있었다.<sup>11)</sup> 두 사람의 깊은 교제는 재 파리 조선인 사이에 소문이 파다했다.<sup>12)</sup>

최린이 먼저 귀국하고 나혜석은 나중에 귀국하였다. 나혜석은 귀국 후 수입이 전혀 없고 가계가 궁핍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곤궁 탈출의 방법을 상담하는 편지를 최린에게 썼다. 이 편지에서, “내 평생을 당신에게 맡기오”라고 썼다고, 잘 아는 우인(友人)을 통해서 ‘오전(誤傳)되어, 김우영의 격노를 사게 되었다.’<sup>13)</sup>

김우영은 처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만일 승낙하지 않으면 간통죄로 고발한다고 하였다. 나혜석이 김우영의 누이, 친척과 사이가 나쁜 것도 작용하여 가족, 친척으로부터도 이혼을 강요당하게 되었다.

나혜석은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심지어는 이광수에게 중재를 부탁하였지만 실패하였다. 나혜석은 할 수 없이 이혼에 동의하게 된다. 그때 두 사람이 쓴 서약서의 내용은 “부(夫)○○○와 처(妻)○○○은 만 2개년 동안 재가(再嫁) 또는 재취(再娶)하지 않기로 하되 피차의 행동을 보아 복구할 수 있기로 서약함”이라고 하는 것이었다.<sup>14)</sup>

이혼하고 나서 ‘현대의 노라’가 된 나혜석은, 일찍이 ‘진(眞)의 연애(戀愛)로 이상(理想)을 삼은 노라 부인(夫人)’에게 경의를 표하고<sup>15)</sup> 「노라를 놓아라」라고 읊었다.<sup>16)</sup> 젊은 날 오로지 자유를 추구하는 그녀와는 달라져 있었다. 나혜석은 자식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김우영에게 재결합까지 강요하였다. “모성애(母性愛)가 천품(天品)으로 있는 것인지 한 습관성(習慣性)인지 의심하고 있다. (중략) 이혼(離婚)하는 동시(同時)에 딱꿨고 후일(後日)의 운명을 기다릴 것이다”라고 말하는 한편, “내 살을 에이

10) 「提訴文」, 『東亞日報』 1934년 9월 20일자.

11) 나혜석, 「多情하고 實質的인 佛蘭西 夫人」, 『中央』 1934년 3월호.

12) 李鍾禹, 「洋畫初期」, 『中央日報』 1971년 8월 28일자.

13) 나혜석, 「離婚告白狀-靑丘氏에게」, 『三千里』 1934년 8월호.

14) 나혜석, 「離婚告白狀-靑丘氏에게」, 『三千里』 1934년 8월호.

15) 「이상적 부인」, 『학지광』 3호, 1914년 12월.

16) 「人形の 집」(『每日申報』 1921년 4월 3일).

는 듯 내 뼈를 끊어내는 듯한 고통이 있었나니 그는 종종 우편배달부가 전해 주는 딸 아들의 편지(片紙)이다. ‘어머니 보고 싶어’ 하는 말이다.”<sup>17)</sup>라고 하는 술회에 나혜석의 고뇌가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나혜석은 이혼한 31년, 제10회 「선전(鮮展)」에서 파리에서 그려온 「정원(庭園)」이 특선이 되고 더욱이 「제전(帝展)」에서도 입선이 됨으로써 그림에 의해 소생하게 되고 생계의 전망도 서게 되었다. 화가로서의 장래가 촉망될 뿐만 아니라 종종 유럽여행의 성과를 회상기의 형태로 발표하여 문필가로서의 기반도 닦았다. 더욱이 그녀의 이혼 후의 감회 등 사생활에 관한 문장도 가끔 지면을 장식하였다. “세상(世上)에 모든 신용(信用)을 일코 모든 공분비난(公憤非難)을 밟으며 부모친척(父母親戚)의 버림을 밟고 옛 조흔 친구(親舊)를 일흔 나는”이라고 하고 있지만,<sup>18)</sup> 이혼 그 자체가 한 사람의 인간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하는 결정적인 것이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당시 조선사회에서 이혼은 그만큼 특이한 것은 아니었다.<sup>19)</sup> 나혜석이 이혼하였을 때(1932) 조선에서 이혼 수는, 결혼 총수 128,258건 가운데 6,548건이라는 통계가 있다.<sup>20)</sup> 그렇지만 여전히 이혼한 여성에 대한 비난은 강하고, 또한 사랑하는 자식과 헤어지고 가족과 친척이라는 하나의 지주를 잃어서 이혼에 의한 고통은 컸지만 나혜석의 화가로서 문필가로

17) 「신생활에 들면서」(『三千里』, 1935년 2월호).

18) 「離婚告白狀-靑丘氏에게」, 『三千里』 1934년 8월호.

19) 당시 『新女性』을 비롯한 많은 잡지에서는 ‘불행한 결혼보다 이혼을’이라고 하는 언설이 종종 보이고 있어서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알레르기 반응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이 자립하기 위해 이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비난이 집중하였다. 나혜석과 같은 시기에 朴仁德이 이혼하여 세상의 관심을 끌었는데, 그녀의 이혼은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논해졌다(『朴仁德公開狀-이혼소동에 관해서 그녀의 태도를 논박한다』, 『新女性』 1931년 12월호). 나혜석의 경우는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하였다고 인식되었다. 그녀의 이혼이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것은, 역설적으로 「신여성」의 결혼으로서 매우 성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

20) 太虛, 「數字에 나타난 朝鮮의 婚姻 調査」(『新女性』 7-9, 1933년 9월호).

서의 입지는 오히려 더 굳혀지지는 않았을까라고 추측된다.

### 3. 「이혼고백장」과 재판 사건

나혜석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좌절한 끝에 행로병자(行路病者)가 되기에 이른 원인은, 이혼 그 자체가 아니라 그녀가 이혼한 남편 김우영에게 보낸 「이혼고백장」의 공표와 최린을 제소한 사건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1934년 잡지 『삼천리(三千里)』 8월호와 9월호에 2회에 걸쳐 나혜석의 「이혼고백장-청구씨(靑丘氏)에게」가 게재되었다. 결혼에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적나라하게 쓰고 남성중심의 조선사회를 고발하는 수기였다. 스스로를 소재로 하여 캔버스가 아닌 지면에 이혼까지의 사실, 부부의 감정 갈등, 주위와의 관계를 그린 것이었다. 그간 남편 태도의 변화도 상세히 썼다. 여성도 개성을 발휘하고 자유롭게 사는 이상적인 결혼생활을 목표로 한 ‘신여성’ 나혜석이 조선사회의 현실에 부딪히어 패퇴하여 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나혜석은 왜 이러한 수기를 썼을까. 이혼 후 다음 ‘제전(帝展)’에 출품하기 위하여 그린 그림을 화재로 소실하여 버리고 또한 지병까지 발병하였다. 1933년 봄 나혜석에게 인터뷰했던 기자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sup>21)</sup> 이러한 신변의 변화가 수기를 쓰는 것에 연결된 것일까.

나혜석은 이 수기에서 김우영과 조선사회에 무엇을 호소했던 것일까. 우선 이혼이 자기의 본의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고취와 친척의 권유를 받은 김우영의 강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 2년간은 재혼하지 않는다는 서약이 깨어진 것, 이혼의 직접원인이 된 최린에게 보낸 편지 사건에 대하여 편지를 쓴 동기와 내용이 고의로 오전(誤傳)된 것에 대한 반론으로

21) 「畫室의 開放-巴里에서 도라온 羅蕙錫女史」, 『三千里』 1933년 3월호.

쓰여진 것이다. 더욱이 이혼사건에서 생긴 김우영과 그 친구들에 대한 불신을, 조선 남성에게 공통하는 문제로서 고발하고 있다.

남성은 평시무사할 때는 여성의 밋치는 애정을 충분히 향락하면서 한번 법 물이라든가 체면이란 형식적 속박을 밋으면 작일까지 방자하고 향락하는 자기 몸을 도리켜 금일의 군자가 되어 집잔을 빼는 비겁자이요, 횡포자가 아닌가. 우리 여성은 모다 이러나 남성을 주저하고저 하노라. (『이혼고백상』 가운은 역경에).

조선 남성 심사는 이상하외다. 자기는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처에게나 일반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 남에게 정조를 유인하는 이상 그 정조를 고수하도록 애호해주는 것도 보통 인정이 아닌가. 종종 방종한 여성이 있다면 자기가 직접 쾌락을 맛보면서 간접으로 말살시키고 저작(咀嚼)시키고 일이 불소하외다. 이 어이한 미개명의 부도덕이나. (『이혼고백상』 속, 조선사회의 인심)

여기에서는 연애와 섹슈얼리티에서도 남녀의 불평등, 그리고 여성에게만 정조를 강요하는 남성중심적 관념에 대한 강한 항의가 표명되고 있다. 같은 당사자라도 남성은 비난받지 않고 사회적 지위도 보전되는데, 여성에게는 혹독한 비난이 집중되는 불합리. 그것은 나혜석이 김우영이나 최린과의 관계, 이혼에 이르는 구체적인 경험에서 맛보았던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다.

근대에 들어와 조선의 여성들은 자아의식에 눈뜨고 가정과 사회에서의 남녀불평등의 개혁에 힘을 쏟아 왔다. 그러나 연애와 섹슈얼리티에서도 남녀가 평등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주장은 나혜석이 최초였다.

『이혼고백상』 발표와 거의 동시기에, 나혜석은 소완규(蘇完奎)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최린을 상대로 고소하였다. 고소내용은 정조유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다. 변호사에 의하면, 9월 14일부터 교섭했지만 최린(피고)이 내 놓은 조건이 부당했기 때문에 재소를 결단했다고 한다.<sup>22)</sup>

소장에서 나혜석(원고)과 최린의 첫 만남에서부터 고소에 이르기까지 경과를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김우영으로부터 이혼청구가 나왔을 때, 원고가 피고에게 상담한 내용, 즉 이광수를 통해서 원고의 장래의 생활비를 대 준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혼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그 후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원고는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34년 4월 경 원고는 부득이 스스로의 전도(前途)를 개척하기 위하여 프랑스 유학을 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여비 1000원과 보증인을 부탁하였지만 피고는 거절하였다, 원고는 이혼당하여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아, 이것이 원인이 되어 현재 극도의 신경쇠약증세에 걸려 있기 때문에 위자료 1만 2000원을 청구한다, 고 하는 것이다.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나혜석과 최린 같은 유배우자간 연애 속에서의 약속은, 법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효력이 없다. 그러나 수기를 보는 한에서는, 파리에 갈 만큼의 돈을 최린으로부터 얻은 것 같다고 추측할 수 있다.<sup>22)</sup>

이처럼 남편과 연인이었던 남성을 개인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발한 것은 나혜석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배척하기에 충분한 조건이었다. 개인적인 일로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사회화한 것, 당시의 '여성문제에 진보적인' 남성조차 가지고 있던, 섹슈얼리티에서의 남녀의 지배·피지배 관념에 항의하였기 때문이다. 사회와 가족의 전통적인 가부장제 구조가, 일제 지배하에서 국가적인 질서에 편입된 가족제도로 바뀌어 가려고 하는 이 시기의 조선에서, 나혜석의 주장은 완전히 이단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더욱이 "다른 남자나 여자와 좋아 지내면 반면으로 자기 남편이나 아내와 더욱 잘 지낼 수 있지요. 나는 결코 나의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 즉 C를 사랑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나이다. 오히려 남편에게 정이 두터워지리라고 믿었사외다. 구미 일반 남녀 부부 사이에 이러한 공공연한 비밀이 있는 것을 보고, 또 있

22) 『東亞日報』 1934년 9월 20일자.

23) 나혜석, 『新生活에 들면서』, 『三千里』 1935년 2월호.

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중심되는 본 남편이나 본처를 어찌하지 않은 범 위내의 행동은 죄도 아니요, 실수도 아니라 가장 진보적인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구절은, 사회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고 혹독한 지탄을 받았다.<sup>24)</sup> 나혜석의 자유로운 연애관은, 그녀가 직접 견문했던 구미 특히 프랑스의 남녀관계에서 영향을 받고 나서 형성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연애 그 가운데서도 기혼자간 연애는 당시 조선에서는 엄청난 충격으로 인식된다. 당시, 겨우 일부 개명적인 사람들의 사이에 연애의 자유가 인정되기 시작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미혼남녀의 사이에서만 용인되는 것이고, 기혼의 여성에게는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다. 나혜석의 이 같은 주장은 철저하게 배척받는 것은 필연이었다.

#### 4. 맺음말

이상에서 나혜석의 빛나는 전반생(前半生)이 아니라, 후반생(後半生)에 중점을 두고서 그녀의 실천적인 여성해방 사상을 검토하여 보았다. 1920 년대에 쓰여진 나혜석의 조선여성에 대한 계몽적인 문장은, 그 나름대로 근대 조선여성사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녀의 참 모습은 「이혼고백장」과 최린 고소사건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나혜석은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관계되는 비통한 체험을 통하여 「이혼고백장」과 최린을 고소하는 형태로, 사회적으로 경 제적으로 혜택 받은 입장에서의 엘리트 여성의 관념적 여성해방론을 극 복하고, 구체적·현실적인 가부장적 사회제도와 남성의 의식에 도전했던 것이었다.

특히 그녀의 여성해방론의 특징은 모든 영역에서 남녀의 불평등에 이 의를 제기한 것이다. 종래 여성측으로부터는 타부시되어 왔던 섹슈얼리

24) 「離婚告白狀」C 와 關係.

터 영역의 불평등까지 포함해서 강요된 ‘정조’와 ‘처녀성’을 부정한 점에 있다.<sup>25)</sup>

이처럼 나혜석의 생각과 그것에 토대를 둔 행동을, 그녀의 ‘특이한 개성’에 의한다고 하면, 그것은 본질에서 매우 벗어난 의론이 될 것이다. 오히려 나혜석의 언설은 극히 현대적인 문제를 던지고 있고, 또한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여성해방론과 비교연구할 만한 제재(題材)를 갖고 있다.

1980년대 이래,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등의 섹슈얼리티를 학문의 대상으로 하여, 역사적 맥락에 자리매김하려는 연구가 대두하여 왔다. ‘근대적 지(知)’와 권력의 틀 속에서 생산된 사고(思考), 언설이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그러한 흐름에 영향받아, 성(性)에 관한 엄한 윤리·규범과 이미지가 근대화·서구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명치국가의 요청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하는 의론의 방향이 나타나고 있다.<sup>26)</sup> 그리고 일본의 ‘새로운 여(女)’ 등, 근대일본의 국가질서로서의 여성에 대한 성 규범을 일탈하는 자에 대해서는, 혹독한 철폐가 내려져, 비난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고 한다.<sup>27)</sup> 식민지·피식민지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의 ‘새로운 여(女)’들이 경험한 섹슈얼리티의 문제와 나혜석의 그것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25) 여기에서는 상세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신생활에 들면서」(『삼천리』 1935년 2월호)나 「獨身女性の 貞操論」(『三千里』 1935년 10월호) 등은 그녀의 정조에 관한 언설을 표현한 것으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6) 牟田和恵·慎芝苑, 「近代의 섹슈얼리티의 창조와 ‘새로운 여’-비교분석의 시도-」, 『思想』 886호, 1998년 4월.

27) 米田佐代子, 「『靑鞵』을 산 여성들의 메시지」, 『靑鞵의 50인』(らいてう研究會, 1996년 12월).

